

## 나약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유영순 (가타리나)  
부산성모병원

따르릉 핸드폰 벨소리가 울린다. 환자 입원에 대한 문의 전화이다. 주말이라 밀린 일들을 하느라 분주하지만 언제나 핸드폰을 옆에 끼고 움직이고 있다. 어제 퇴근길에 재원 환자와 빈 병실을 파악하였기에 입원실은 충분히 있었다. 환자 성함을 여쭙어 보니 이를 전부터 자녀들이 수시로 돌아가며 전화를 한 환자라서 빈 병실이 있으니 자꾸 전화만 하시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입원이 가능하고, 궁금증도 풀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잘못된 나의 입장이었다. 수화기로 울리는 가족의 고함소리에 말을 잊지 못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당신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고 빨리 오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자녀가 7명인데,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각자 알아 본 후 결정하기 위하여서인데 당신은 빨리 오라고만 하느냐…….” 이 말은 전화한 본인도 가족들의 의견이 엇갈리므로 화가 났는데 사정을 모르는 내가 빨리 오라하니 더 화가 났던 것이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상대방이 화가 났으므로 우선 잘못을 빌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전화를 내려놓고 머리를 때렸다. 왜 이런 잘못을 하였는지 자신이 한심했다. 그저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 빈 병실이 있을 때 빨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에 내 입장만 말했을 뿐이다.

의료인은 다급한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직원교육, 친절강의를 할 때 마다 외쳤는데 정작 내가 말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우 후회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 종사하는 우리는 언제나 베틀 끝에 서 있는 환자와 가족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인생을 나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실수를 한다. 누구보다도 압 환자들과 많이 살았고, 그들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러나 입으로 잘못은 빌었지만 전화를 한 가족에게는 이미 상처를 주었기에 돌이킬 수 없었다. 부족한 자신이 남에게 무엇을 도울 것이라고 나서는지 스스로 한심했다.

### 우리에게 환자나 가족들이 없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하루에도 수많은 전화와 방문자들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정보를 드리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목이 너무 아파서 ARS를 만들어 더 필요한 것만 말로 전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호스피스에 대해 무지한 때 이었다. 생각만 해도 환자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다.

삶과 죽음을 오고가는 가족들이 녹음된 물음에 번호를 누르고 있을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일의 효율만 생각했던 지난 시간을 생각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너무 늦게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와

가족들을 만날 때이다. 가족들은 환자가 암 인 줄 모른다고 절대 비밀로 해 달라 하신다. 그리고 서울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으나 더 이상 치료가 어려워 연고지인 부산으로 오셨다 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내원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 입원도 안 되는 환자, 가족을 볼 때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하고 한숨을 내쉬게 된다. 아직 우리 주위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지 편안하게 돌봄을 받는 곳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우리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여 누구나 쉽게 다가오는 호스피스 병동이 되기를 기다려 본다.

얼마 전에 입원 하신 환자의 가족을 면담하면서 팔순을 넘긴 부인이 남편에게 절대 암이라 말하지 말고, 간병을 본인이 꼭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오래 근무한 간호사가 남편을 돌보게 해 달라고 부탁하신다. 요즘 젊은이들은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해 싸우고 쉽게 사랑했다가 쉽게 헤어진다고 하는데 팔순을 넘긴 부인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여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는 호스피스 돌봄을 통하여 누구도 경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느끼고,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같다.

신앙심이 부족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길인지 몰랐다. 그래서 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만 외우고 다녔다. 그런데 호스피스 업무를 하면서 하느님의 완벽한 가르침을 다시 느끼고, 하느님 곁으로 가시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보면서 참 사랑을 배운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마음 먹어도 순간순간 변덕스런 마음

이 생겨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아니면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이 사람은 내편, 저 사람은 반대편 등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는 서로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런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다를까? 라고 생각해 본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데 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마음에 욕심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느님께서서는 어떠실까?

얼마 전에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참석했었다. 많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을 만났다. 어느 행사이건 참석하는 분은 변함없이 참석한다. 오랫동안 호스피스에 종사하면서 소진(burn out)하지 않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공부하고 토론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참 좋아 보였는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더욱 좋아 보였을 것 같다. 그래서 부족한 나에게도 선배님들과 같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을 변함없이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하느님께 빌어본다. 아멘

